

다문화 시각에서 접근한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 방안
- 결혼이주여성 및 영양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

김지은¹ · 김지명² · 서선희^{3§}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임상영양학전공,¹ 한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²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³

Nutrition Education for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a Multicultural Approach: In-depth Interviews with Female Immigrants and
Nutrition Education Professionals

Kim, Ji Eun¹ · Kim, Ji Myung² · Seo, Sun Hee^{3§}

¹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150, Korea

²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al Sciences, Hanbuk University, Dongducheon 483-777, Korea

³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s &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150,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dietary behaviors and nutritional knowledge among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s a necessity for nutrition education, which is apparent to both immigrant women liv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as well as nutrition education experts. The survey was conducted with 30 immigrant women with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eoul. The dietary behaviors of the wome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heir period of residence. The longer they had resided in Korea, the higher their dietary behavior scor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utrition knowledge by their period of residence. This study also conducted in-depth personal interviews with 8 immigrant women who lived in Seoul, and with 4 nutrition education experts. These interviews were performed to provide profound insights regarding the content and means of nutrition education for immigrant women. Nutrition education for immigrant women liv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should proceed at a basic level in terms of language and content, using bilingual (Korean and their native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Education topics and content need to be develop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vel of Korean comprehension and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Also, this multicultural approach should be adapted when planning nutrition education since immigrant women have various acculturation levels, and the content and means of education should be adjusted to these acculturation levels. Management after nutrition education is necessary for immigrant women who do not have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Practical educational methods such as real cooking practices and food purchasing simulations must be developed. Finall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a systematic plan for nutrition education among immigrant women living in multicultural families. Policy support such as training nutrition educators on multicultural individuals residing in Korea is necessary for active and effective nutritional education. (*Korean J Nutr* 2011; 44(4): 312 ~ 325)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y, immigrant woman, multicultural nutrition education, in-depth Interview.

서 론

출산을 감소, 여성 독신자 증가 등 인구학적 요인과 가치

접수일: 2011년 7월 8일 / 수정일: 2011년 7월 25일

채택일: 2011년 8월 22일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mail: seo@ewha.ac.kr

관 변화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최근 15년간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 사이의 결혼이 47배나 증가하였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¹⁾ 현황에 따르면 국제결혼 건수가 1991년만 해도 663명밖에 되지 않던 것이 2001년도에 10,006명, 2007년도에는 38,491명으로 증가하여 전체결혼 건수의 11.7%를 차지하였고, 2010년 9월 기준 결혼이민자는 전체가 139,050

명으로 집계되었다.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족 형태도 다양한 구조로 변화되어 2008년 3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공포되고,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부부관계와 가정, 사회적 가치관, 자녀 부모관계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부부간의 문제로는 문화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문제, 언어 갈등의 문제, 생활 습관의 문제로 주로 의사소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동양에서는 남편 중심적 생활양식 등 문화배경의 이질성이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도박, 가정폭력, 배우자의 부정 등이 가정불화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²⁾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을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주여성들은 언어, 생활습관, 문화 등의 생활전반에 걸쳐 문화적응에 따르는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배우자 및 시부모와의 갈등관계로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정 및 사회적 갈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제일 처음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음식문화의 적응이다.

음식은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식생활 문화는 지역적 특성과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 특성 등 다양한 영향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주여성들의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은 식생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주여성들은 지역별, 출신국가별, 거주기간별,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식생활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³⁾ 이주여성들은 자국과는 다른 음식의 맛, 요리법, 식재료, 식습관 등의 차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양불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한국 남성과 결혼해 식사의 질이 떨어지고 식생활 관리가 힘들 뿐 아니라 식생활의 빈곤까지도 우려되고 있다.⁴⁾ 이주여성들은 이민 초기 한국음식에 관한 정보를 시택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으나 시어머니의 잘못된 영양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었다.⁵⁾ 이민 후 이주여성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고기류 및 생선류, 칼슘군, 당질군, 감자류 등의 섭취가 낮아졌으나, 체중과 BMI는 증가하여 올바른 식생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출신 국적도 다양해질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양육방식과 식생활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식생활 관리자인 이주여성들에게 입국초기부터 맞춤형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며 이론적 학습방법이 아

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및 식행동을 파악하고,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및 영양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안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조사나 무작위 설문조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적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 모형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구축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조사기간 및 대상

D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S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30명의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형태 및 영양지식을 분석하였으며, 영양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30명의 이주여성들 중 8명을 뽑아 이주여성들과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실시하였다. 이주여성 인터뷰 대상자는 면담이 가능하고 영양교육을 최소 1회 이상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는 이주여성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의 실제 적용성을 고려하여 객관성과 실제적 합의점을 찾고자 다문화 영양교육에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제한하였다.

대상자 일반사항 및 식생활 형태와 영양지식 조사

설문조사 내용

설문문항은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영양지식, 식생활 형태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국적, 연령, 거주기간, 최종학력, 직업, 가족형태, 자녀수, 종교, 질환 유무 등을 조사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사의 도움을 얻어 대상자의 이해도를 파악하며 설문문을 진행하였다.

영양지식

국내의 연구^{6,7)}에서 이용한 영양지식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영양소와 연결된 식품과 식태도에 따른 기초적인 문항을 개발하고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지식문항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식생활 형태

식생활 형태는 황 등의 연구⁸⁾에서 사용했던 문항을 수정·보완한 식생활설문조사표 및 간이 식생활 진단표를 사용하

였다. 평가내용으로는 우유 및 유제품, 단백질, 채소, 과일류 등 5군 영양소 섭취 빈도와 나트륨 및 간식 섭취 빈도, 끼니의 규칙성, 편식유무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심층인터뷰 및 자료분석

심층인터뷰

심층인터뷰는 질적 연구의 일종으로 대상자의 전문성과 견해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⁹⁾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심층인터뷰 참여에 대한 구두 및 서면동의를 받았다. 인터뷰에서 진술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와 익명보장,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공지하였고, 녹취록이 작성된 후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명, 지명 등의 자료는 가명이나 기호로 대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익명성이 보장된 자료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과 방법은 국내외 연구¹⁰⁻¹³⁾에서 사용되었던 방법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심층인터뷰 자료 분석

인터뷰 질문지는 Krueger & Casey¹⁴⁾가 제시한 질문방식을 참고하여 도입, 전환, 주요, 요약, 마무리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심층인터뷰 내용으로는 영양교육을 받아본 경험유무, 영양교육의 필요성, 유익성, 문제점, 영양교육 방법, 영양정보를 얻는 방법 등이 다루어졌다. 다문화 영양교육 전문가의 심층인터뷰는 다문화 영양교육의 필요성, 다문화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다문화 영양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필사된 자료는 Krueger & Casey¹⁴⁾가 제시한 분석과정인 연구시작 시기, 인터뷰 도중, 인터뷰 직후, 인터뷰 종료 후의 4단계 지침사항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영양교육 필요성 인식과 전문가 인터뷰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범주와 하위범주로 결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영양교육에 대한 견해를 2개의 주제, 6개의 범주, 20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다문화분야 전문가의 영양교육 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견해는 2개의 주제, 5개의 범주, 14개의 하위범주, 29개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범주에 해당되는 심층인터뷰 내용을 하위범주 별로 자세하게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프로그램 (version 15.0)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거주기간과 자녀 유무에 따른 영양지식과 식생활평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결 과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행태 및 영양지식

인구통계학적 특성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의 국적은 필리핀 10명 (33.3%), 베트남 6명 (20.0%), 태국 3명 (10.0%), 일본 1명 (3.3%), 중국 1명 (3.3%), 기타 9명 (30.0%)로 나타났다. 연령은 31세~40세 14명 (46.7%), 21세~30세 11명 (36.7%), 41세 이상 5명 (16.7%)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5년 이상 13명 (43.3%), 4~5년 6명 (20.0%), 3~4년 6명 (20.0%), 2~3년 3명 (10.0%), 1~2년 1명 (3.3%), 1년 미만 1명 (3.3%)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13명 (4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11명 (36.7%), 전문대 졸업 4명 (13.3%), 중학교 졸업 2명 (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전업주부가 16명 (55.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시, 시간제직 7명 (24.1%), 사무직과 정규직 3명 (10.3%)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형태가 14명 (46.7%),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형태는 7명 (23.3%), 대가족은 6명 (20.0%), 배우자와 사별 2명 (6.7%), 기타 1명 (3.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1명과 무자녀가 각각 11명 (36.7%), 2명은 7명 (23.3%), 4명 이상이 1명 (3.3%)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 11명 (37.9%), 천주교 7명 (24.1%)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인터뷰 참여자 중 빈혈 2명 (6.7%), 고혈압 2명 (6.7%), 당뇨병 1명 (3.3%), 기타 3명 (10.0%)로 식이요법이 병행되어야 하는 질환을 가진 이주여성들이 전체 10~20%를 차지하였다.

간이식생활진단표를 활용한 식생활 행태 분석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행태는 Table 2와 같다. 전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행태 총 점수는 50점 만점일 때 33.53 ± 9.41 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과일이나 과일주스를 매일 먹는다' (3.8 ± 0.89)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3.03 ± 0.90)이었다. 거주기간에 따른 식생활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편이다.'의 문항에서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5$).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3.69 ± 0.75)가 거주기간 5년 미만인 경우 (3.00 ± 0.84)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간이식생활

집단의 전체점수에서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35.54 ± 4.41)가 5년 미만인 경우 (32.12 ± 4.33)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p < 0.05$).

자녀수에 따른 식생활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집단

(3.42 ± 0.77)이 '지방이 많은 육류를 주 2회 이상 먹는다.'의 문항에서 자녀가 있는 집단 (2.64 ± 1.12) 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p < 0.05$), '식사를 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을 때가 많다.' 문항에서 자녀가 있는 집단 (4.09 ± 0.83)이 자녀가 없는 집단 (3.37 ± 0.76)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p < 0.05$).

Table 1. Demographics of survey respondents

	Classification	N	%
Original nationality	China	1	3.3
	Vietnam	6	20.0
	Philippines	10	33.3
	Japan	1	3.3
	Thailand	3	10.0
	Others	9	30.0
Age	21-30	11	36.7
	31-40	14	46.7
	41 and older	5	16.7
Years of residence	Less than 1 year	1	3.3
	1-2 years	1	3.3
	2-3 years	3	10.0
	3-4 years	6	20.0
	4-5 years	6	20.0
	5 years and Longer	13	43.3
Education level	Middle (Secondary) school	2	6.7
	High school	13	43.3
	College	4	13.3
	University	11	36.7
Occupation	Homemaker	16	55.1
	Office clerk	3	10.3
	Casher	3	10.3
	Part-time Employee	7	24.1
Family type	Married couple without children	9	30.0
	Married couple with children	14	46.7
	Three generation family	6	20.0
	Others	1	3.3
No. of children	None	11	36.7
	1	11	36.7
	2	7	23.3
	4 and more	1	3.3
Religion	Christianity	5	17.2
	Catholic	7	24.1
	Buddhism	11	37.9
	Islam	1	3.5
	Others	5	17.2
Disease	Anemia	2	6.7
	Diabetes	1	3.3
	Hypertension	2	6.7
	No disease	22	73.3
	Others	3	10.0
Total		30	100.0

영양지식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은 Table 3과 같다. 영양지식 문항 중 '칼슘이 풍부한 식품'에 대한 영양지식 수준 (0.87 ± 0.3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혈이 생기는 영양소와 '칼로리'에 대한 영양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영양지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양지식 총점에서 평균은 거주기간 5년 이상 집단 (0.63 ± 0.265)이 5년 미만 집단 (0.58 ± 0.16)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개별 문항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 < 0.05$). 자녀 유무에 따른 영양지식 점수 차이는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문화 가정 영양교육에 대한 이주여성의 심층 인터뷰 결과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8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한국어 능력, 영양교육 참여 경험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들의 국적은 필리핀 여성이 4명, 태국인이 1명, 네팔인 1명, 캄보디아인이 1명, 베트남인이 1명이었다. 연령은 24세부터 41세였으며, 한국에 거주한지는 3년에서 9년 정도 되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부터 대학졸업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이 가정주부였으며 그 외에 임시직, 점원, 상담원의 직업이었다. 자녀가 없거나 있을 경우 1명, 2명,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종교는 무교, 불교, 힌두교, 천주교, 기독교이었다. 이들은 모두 영양교육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5에서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영양교육에 대한 이주여성의 견해 20개념을 6개의 범주 ['가정의 식생활 책임자', '영양정보 취약계층', '열악한 경제수준과 학력수준' '문화적 차이' '이민 후 식생활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도']로 분류하였으며, 6개 범주에서 다시 2개의 주제 '한국 식생활 적응'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출하였다.

한국 식생활 적응 (Adapting to Korean dietary life)

가정의 식생활 책임자 (Responsibility of family's dietary habits).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민 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며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식사준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1

Table 2. Dietary behavior by residence period and children

Dietary behavior	Total (n = 30)	Residence for		t-value	Number of children		t-value
		< 5 yrs (n = 17)	≥ 5 yrs (n = 13)		≥ 1 (n = 11)	None (n = 19)	
Drinking at least one serving of milk or other dairy drink product every day	3.47 ± 1.17 ¹⁾	3.24 ± 1.15	3.77 ± 1.17	-1.254	3.73 ± 1.10	3.32 ± 1.20	0.929
Eating meat, fish, and/or egg at every meal	3.37 ± 0.85	3.18 ± 0.81	3.62 ± 0.87	-1.426	3.18 ± 0.75	3.47 ± 0.90	-0.903
Eating vegetables other than Kimchi at every meal	3.50 ± 1.07	3.24 ± 1.09	3.85 ± 0.99	-1.582	3.27 ± 1.10	3.63 ± 1.07	-0.878
Eating fruit or fruit drink every day	3.80 ± 0.89	3.76 ± 0.90	3.85 ± 0.90	-0.245	3.91 ± 0.94	3.74 ± 0.87	0.506
Eating deep or stir fried food more than twice a week [†]	3.17 ± 0.87	3.12 ± 0.93	3.23 ± 0.83	-0.346	3.27 ± 0.90	3.11 ± 0.88	0.499
Eating high-fat meat more than twice a week [†]	3.13 ± 0.97	3.12 ± 1.05	3.15 ± 0.90	-0.099	2.84 ± 1.12	3.42 ± 0.77	-2.060*
Tending to add salt or soy source to the food at meal [†]	3.63 ± 0.85	3.53 ± 0.87	3.77 ± 0.83	-0.760	4.09 ± 0.83	3.37 ± 0.76	2.424*
Taking 3 meals per day regularly	3.03 ± 0.89	2.82 ± 0.88	3.31 ± 0.85	-1.509	2.73 ± 0.79	3.21 ± 0.92	-1.461
Snacking ice cream, confectionary, and/or soft drink more than twice a week [†]	3.13 ± 1.01	3.06 ± 1.14	3.23 ± 0.83	-0.457	3.27 ± 1.19	3.05 ± 0.91	0.570
Consuming a variety of food for nutritional balance	3.30 ± 0.84	3.00 ± 0.79	3.69 ± 0.75	-2.428 ³⁾	3.36 ± 0.92	3.26 ± 0.81	0.312
Total score	33.53 ± 9.41	32.12 ± 4.33	35.54 ± 4.41	-2.123*	33.52 ± 4.13	33.61 ± 5.03	-0.070

1) mean ± SD 2) †: reversed item 3) *: p<0.05

Table 3. Nutrition knowledge score by residence period and children

Nutrition knowledge	Total (n = 30)	Residence for		t-value	Number of children		t-value
		< 5 yrs (n = 17)	≥ 5 yrs (n = 13)		≥ 1 (n = 11)	None (n = 19)	
Consumption of snacks do not contribute to weight gain.	0.63 ± 0.49 ¹⁾	0.53 ± 0.51	0.77 ± 0.44	-1.376	0.64 ± 0.50	0.63 ± 0.50	0.025
Drinking large amount of water contributes to weight gain.	0.62 ± 0.49	0.53 ± 0.51	0.75 ± 0.45	-1.221	0.64 ± 0.50	0.61 ± 0.50	0.131
Ideal dietary habit is built in childhood.	0.77 ± 0.43	0.76 ± 0.44	0.77 ± 0.44	-0.028	0.64 ± 0.50	0.84 ± 0.37	-1.178
Foods for vitamin intake	0.63 ± 0.49	0.76 ± 0.44	0.46 ± 0.52	1.696	0.82 ± 0.40	0.53 ± 0.51	1.722
Select the incorrect statement for eating attitudes	0.66 ± 0.48	0.56 ± 0.51	0.77 ± 0.44	-1.170	0.73 ± 0.47	0.61 ± 0.50	0.621
Nutrient that causes anemia in deficiency	0.37 ± 0.49	0.41 ± 0.51	0.31 ± 0.48	0.574	0.45 ± 0.52	0.32 ± 0.48	0.741
Calcium rich foods	0.87 ± 0.35	0.88 ± 0.33	0.85 ± 0.38	0.275	0.82 ± 0.40	0.89 ± 0.32	-0.578
Works well as a function of calcium	0.59 ± 0.50	0.47 ± 0.51	0.75 ± 0.45	-1.547	0.50 ± 0.53	0.63 ± 0.50	-0.665
Nutrients in tofu	0.50 ± 0.51	0.41 ± 0.51	0.62 ± 0.51	-1.091	0.55 ± 0.52	0.47 ± 0.51	0.367
The highest calorie food	0.37 ± 0.49	0.35 ± 0.49	0.38 ± 0.51	-0.172	0.45 ± 0.52	0.32 ± 0.48	0.741
Total score	6.01 ± 6.74	5.66 ± 1.60	6.43 ± 2.60	-0.584	6.24 ± 2.20	5.85 ± 2.00	0.724

1) mean ± SD

은 한국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이주여성의 자녀가 정상적인 발육상태를 보이지 않을 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사례 #3은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영양지식이 많이 부족하

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또 사례 #2는 대가족 형태의 이주 여성들은 미흡한 상차림으로 인해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오랜 질환을 앓고 있는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질환별

Table 4. Information of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Case No.	Age	Country of birth	Years of residence	Education level	Occupation	Number of children	Religion	Proficiency of Korean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Times)
1	35	Philippines	5	High school graduate	Homemaker	2	None	Average in reading and writing fluent in speaking	3
2	41	Thailand	9	High school graduate	Homemaker	None	Buddhism	Average in reading and writing fluent in speaking	1
3	31	Philippines	4	University graduate	Temporary employee	4	None	Average in reading and writing incompetent in speaking	1
4	28	Nepal	3	High school graduate	Homemaker	None	Hinduism	Incompetent in reading and writing average in speaking	2
5	29	Cambodia	3	Middle (secondary) school graduate	Homemaker	None	Buddhism	Incompetent in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2
6	34	Vietnam	4	University graduate	Office clerk	2	Buddhism	Average in reading and writing fluent in speaking	2
7	24	Philippines	4	High school graduate	Homemaker	1	Christianity	Average in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4
8	37	Philippines	5	High school graduate	Consultant	1	Catholic	Average in reading and writing fluent in speaking	3

Table 5.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with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Subject	Categories	Concepts
Adapting to Korean dietary life	Responsibility of family's dietary hab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trition knowledge required for child-rearing • For adapting to the new family culture and environment as a member of Korean society • Having responsibilities for housework and preparing meals in the home. • Need to have nutrition knowledge by considering Life-Cycle(pregnant women, infants, children, adults and old people) for family's health
	The vulnerable and weak class regarding nutrition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ving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commonly distributed nutrition information due to lack of Korean language fluency • Lack of translated material(Korean food recipes and nutrition books written in Korean) • Having difficulties in using facilities for multi-culture community (Health center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tc.) and using services to obtain information concerned • Being provided wrong nutrition information from their spouse and mother-in-law • Lack of the basic nutrition knowledge
	Poor economic and academic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 involved in economic activities for a living without adapting to Korean society and food culture • Financial difficulties in purchasing various food materials • Difficulties in having a balanced diet while learning themselves because of the language difficulties and the low intelligence
	Cultural differ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rong meal consump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countries and religions • Unfamiliar Korean food ingredients and complicated recipe • Difficulties in eating spicy and salty Korean foods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Changes of dietary life after immig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healthy eating habits due to the acculturative stress • Biased dietary habits in favor of their taste • Immigrant women being taken over unhealthy eating habits from their spouses
	Interests in heal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osure to disorders, obesity and adult diseases • Difficulties in choosing foods for a healthy lifestyle

영양지식까지도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영양정보 취약계층 (The vulnerable and weak class regarding nutrition information). 결혼이주여성들은 초기 새로운 식문화 적응을 위해 주거환경에서 정보들을 조금씩 접하고 있었다. 사례 #4와 8은 배우자와 시댁식구들, 식품서적이나 잡지,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었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 한국어 이해능력 부족으로 건강 및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습득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 시어머니의 잘못된 영양지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족들의 수용 및 배려의식의 부족으로 한국 식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간혹 민간단체인 종교시설이나 같은 출신국 친구들과 그들 가족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한국생활 적응과 더불어 식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고 있었으나 이런 정보유입은 많지 않았다. 보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들은 이용 경로를 몰라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열악한 경제수준과 학력수준 (Poor economic and academic level).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아직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 생계유지를 위해 단순 노무업에 종사했으며 영양교육 참석과 더불어 식품품 지원과 같은 물질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 이해 뿐 아니라 보통 수준보다 낮은 지적수준의 이주여성들도 있어 혼자서 영양지식을 체득할 수 없었다.

문화적 차이 (Cultural differences).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과는 다른 자극적인 우리나라 음식의 맛, 삶기, 찌기, 조리기, 데치는 등 생소한 요리법과 식재료 등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주 초기에 한국 식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워했으며 출신국가별, 거주기간별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모국 종교에 따라서 기피하는 음식들도 있었다.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Prevention of disease and promotion of health)

이민 후 식생활 변화 (Change of dietary life after immigration). 결혼이주여성들은 이민 후 한국사회 및 문화에 대한 미적응으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불규칙한 식습관을 갖고 있었고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음식을 기피하여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8은 이주 초기에는 자국 음식을 먹는 빈도가 높았으나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본국의 음식섭취 빈도는 낮아졌다 하였다. 또 새로운 음식을 처음 접해 본 이주여성들은 생소한 음식 맛에 대한 충격으로 이민 초기 기피했던 음식들을 아직까지도 거부하며 한 쪽으로 편중된 식사형태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주여성들 중에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식사에 길들여져 그 식습관대로 따라가는 경향도 있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Interest in health). “저는 한국에 온지 5년 되서 한국 음식 잘 아는 편이에요. 한국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은 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아무거나 안 먹어서 영양에 좋은 아이들 간식 만드는 법 알고 싶어요.” (사례 #1). 앞에서 제시한 사례와 같이, 한국 식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최종 학력 및 거주기간이 긴 여성들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다문화 가정 영양교육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구체적인 다문화 가정 영양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 4명의 특성을 Table 6에 제시되었다. 전문가 그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교육대학교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팀장, 보건소 영양사로서 다문화 가정의 영양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로 구성하였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방안에 대한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결과 29개념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29개념을 14개의 주제로 하위범주화 하였고, 14개의 하위범주를 5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5개의 범주에서 2개의 주제 [다문화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다문화 영양교육 여건 조성]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다문화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Contents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nutrition education)

영양교육 내용 및 구성방식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and Configuration method).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민 초기 한국어 이해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한국음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식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인 한국 식재료와 상차림, 단순한 조리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Table 6. Information of nutrition education professionals

Case No.	Age	Affiliation	Position
1	35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er
2	48	A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3	40	B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eam manager
4	33	C Public Health Center	Former official

Table 7. Results of in-depth interview with nutrition education expert

Subject	Category	Subcategory	Concepts
Contents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nutrition education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and configuration method	Building basic knowledge and advance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 for improving cooking abilities and learning about Korean traditional food ingredients, table setting and the roles of traditional side dish • Learning about basic nutrition knowledge by considering Life-Cycle (pregnant women, infants, children, adults and old people) and being familiar with foods containing essential nutrients • Providing bad information examples of Korean dietary habits • Making education progress with basic contents containing easy terms by utilizing educational resources written in both languages (Korean and their mother tongues) • According to the command of Korean language and the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utilizing advanced topics and contents as well as educational resources written in only Korean
		Integrated education and segregated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upposing them people who speak Korean well, having them mingled with Korean people while educating on Korean traditional table setting • For "we feeling" and exchanges with people from the same culture, considering that segregated education is necessary for foreigners who have feeling different and extreme stress due to adapting culture
	Method of nutrition education	Small group education and personal counsel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ving immigrant women the floor in order to share information and experiences each other • Visiting and nutrition in person counseling according to individual difficulties
		Follow-up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nding them leaflets and magazines on nutrition regularly in order to review what they learned • Sending them text message alerts for education contents • Regular on-line chatting or phone consulting
		Techniques for communicating nutritional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ing specific and easy terms • Combining practice with theory, after completing theoretical education
		Effective use of human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 naming a participant who is proficient in Korean as an interpreter to help them translate • Communicating information to the families of immigrant women as well
	Tools and media for nutrition education	Translated educational resour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ing contents starting with the basics including five-story food guide tower, recipes for Korean traditional food, practice of eating behavior guidelines • Developing educational resources written in both languages, Korean and mother tongues (textbooks, brochures, leaflets and recipe cards)
		Making video fi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fering right information through presentations of multi-cultural eating habits and examples by countries
Establishing supporting environments of nutritio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tical supports	Government supports and financial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 immigrant women, setting up the department within the government for nutritional education • Considering financial planning according to a long-range plan as an urgent issue, instead of an one-off education
		Professional training and support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s for training centers combined with multi-culture sensibilities and educational abilities • Making full use of volunteers and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reign languages
		Networ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of multi-culture related agencies and cooperating each other • Preparing active PR plans for people who don't have enough abilities to understand Koreans
	Arrangement of social atmosphere	multi-culture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full use of the institutional stabil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s including NGO programs
		Database of multi-cultural nutr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ablishing educational manuals for multi-culture families through data collection including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Ethics education as world citiz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eds for cultural tolerance and consideration for the minorities • In order to eating cultures by countries, nutritional education based on multi-culturalism instead of assimilation education

내용 뿐 아니라 언어적 측면에서도 기초과정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주여성들의 학력은 대다수 낮은 편이고 갖고 있는 영양지식은 본국에서 배운 것이 다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영양지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점차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 주제 및 내용이 심화되어야 하며 처음에는 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국어가 기재되어 있는 번역물을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보다 쉬운 내용전달을 위해 기존의 개발되어져 있는 한글 학습자료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기초적인 이론지식과 실습교육, 생애주기별 필수지식 전달, 본국에서 익힌 잘못된 사례 정보제공, 언어 측면의 기초과정 전개와 이중언어 자료사용,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영양교육의 심화로 개념화 하였고 이를 '기초적인 지식 능력 배양과 심화과정 교육'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영양교육 방법 (Method of nutrition education).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어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면 한국의 식재료, 기본상차림 교육은 한국인들과 함께하며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교육, 같은 문화권 사람들과의 동료의식과 교류, 극심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질감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특히 많은 정보교환이 필요한 육아에 대한 부분은 서로 경험담을 나눔으로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 소그룹교육이 적합하며, 이주여성 개인마다 처한 어려움이 다르므로 영양사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개인상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교육이나 소그룹교육, 개인상담 등 모든 교육에서는 구체적이고 쉬운 단어로 설명해야 하며 이론 교육 후에는 꼭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행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간혹 대상자 중에는 거주기간이 길고 학력수준 및 한국어에 능통한 이주여성이 있다면 이런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접 번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양사와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주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여 가정에서 직접 체득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통합교육과 분리교육', '소그룹교육과 개인상담', '교육 후 관리', '영양지식 전달기법', '효과적인 인재활용'으로 하위 범주화 하였다.

영양교육 도구 및 매체 (Tools and media for nutrition education).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교육에도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의 도구 및 매체가 활용되지만 이주여성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림이나 모형 등 다양한 매체들이 개발되어 교육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문화 영양교육을 위한 매체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라 5군 식품구성법, 한국 기본 음식 조리법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나라별로 번역된 교육물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글과 이주여성의 모국어로 구성된 이중 언어의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이런 자료의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들이 직접 식습관을 재연하고 사례를 보여주는 동영상 제작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번역된 교육물 (교재, 팸플릿, 리플릿, 요리카드)', '동영상 제작' 으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다문화적 영양교육여건 조성 (Establishing supporting environments for nutritio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다문화 영양교육 정책적 지원 (Political supports for nutritio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y).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영양교육이 보건소나 농촌지도센터, 다문화화관련기관 등 한시적,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교육을 주관할 정부 부처 내 부서가 설치되어 체계적인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육재정 등)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좋은 예로는 '영양플러스사업'처럼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선정기준과 재정지원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현실화되었고 영양교육 측면에서도 다문화 감수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인력과 양성기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적으로 우수한 다문화 영양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영양교육 뿐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여 다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영양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영양교육자에게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양성기관도 많이 개설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많은 이주여성들에 비해 담당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외국어 전공 대학생 및 자원봉사의 활용도 중요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말고도 서포트 중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다문화 건강지도사 개념의 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여러 부처들과 기관 간 정책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즉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간의 횡적·종적 협력체계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기관의 교육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글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이주여성들이 교육 기회를 많이 놓치고 있었다. 위의 내용을 '정부의 지원 및 재정 마련', '인력양성 및 지원', '부서별 연계'로 하위범주화 하였다.

사회적 분위기 형성 (Arrangement of social atmosphere). 전문가들은 다문화 영양교육의 제도적 안정성은 정부에서

관리하되, 교육 내용의 창의성과 유연성은 민간단체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직은 다문화 영양교육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학교나 시민단체, NGO 교육 프로그램 (체현, 활동, 실습) 등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다문화 영양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은 매년마다 업데이트 되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다문화 영양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료나 식사행태, 건강상태에 따른 현황자료나 문헌집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 이런 자료는 영양개선의 방도를 강구하는 기초자료를 얻기 때문에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 향상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고 말하였다. 이런 자료들이 매년 업데이트 되어 지려면 국민건강영양조사처럼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수요에 맞춰서 제도적인 측면과 데이터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익숙한 본국의 식문화와 한국 식문화와 비교·대조하면서 양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양쪽 문화와 사회를 애정을 가지고 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위의 내용을 '다문화 거버넌스', '다문화영양 기초통계자료', '세계시민 윤리교육'으로 하위범주화하였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D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S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및 식생활 행태를 조사하고,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8명과 영양교육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다문화 가정 영양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0명의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전체 출신국가 현황은 필리핀 33.3%, 베트남 20.0%, 태국 10.0%, 중국과 일본이 각 3.3% 등이었다. 간식생활진단표를 이용하여 조사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행태를 보면, 다양한 식품의 영양균형과 식생활행태 총점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이 5년 미만인 다문화 가정여성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기간이 많아질수록 식생활이 더 바람직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과 배우자와의 식습관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Kim 등의 연구⁶⁾에 따르면, 이주 초기에는 영양섭취가 불량한 배우자와 유사한 식생활을 하다가 거주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적응이나 사회활동 증가, 외식빈도의 증가등으로 배우자와의 영양소 섭취량과의 상관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Kim과 Lee의 대구지역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를 분석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고기류 및 생선류, 칼슘군, 당질군, 감자류 등의 식사 균형도와 총점이 1년 미만 거주한 다문화 가정 여성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정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⁵⁾

본 연구에서는 거주기간, 자녀유무에 따른 식생활행태를 살펴보았으며, 거주기간에 따른 식생활행태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 유무에 따른 식생활 행태 총 점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부항목별로 볼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방이 많은 육류는 유의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며, 식사할 때 소금이나 간장은 유의적으로 덜 첨가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영양지식 및 식생활실태에 관한 Kang의 연구¹⁵⁾에서는 연령, 학력, 거주지역에 따른 식습관을 비교하였으며, 특히, 거주지역에 따른 식습관에서 아침 식사의 규칙성, 식사시간의 규칙성, 적당한 식사량, 기호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 선호에 관한 식습관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영양지식은 거주기간이나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ang의 연구¹⁵⁾에 따르면, 학력에 따른 10가지 문항에 대한 영양지식의 정답율을 비교하였을 때, '달걀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응답에서 학력에 따른 정답율이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에 따른 영양지식의 정답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문항은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이다.', '좋은 식습관은 어릴때부터 형성된다.', '탄수화물은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내는 영양소이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리기 쉽다.' 이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 실태 분석연구가 많지 않아, 식생활행태나 영양지식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다문화여성의 한국 식생활에 대한 적응과 관련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거주기간, 자녀유무, 연령, 학력, 거주지역 등의 요인과 식생활 적응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는 식생활행태와 영양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논의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한국식생활의 적응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정의 식생활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정보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이 낮는데

서 오는 식생활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식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측면에서는 이민 후 식생활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이 도출되어, 이러한 요인들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영양교육 방안 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2008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에서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실태 분석에서 이주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점을 둔 활동은 가사활동이며, 장 담그기, 김치 담그기 등의 활동을 어려워하여 체계적인 전통가정 음식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¹⁶⁾ 또한 Kim 등⁴⁾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식생활 교육을 통해 한국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현재 다문화 영양교육을 볼 때,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양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기초적인 영양지식 배양 및 심화과정의 단계적 교육을 구성하며, 교육 방법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통합교육이나 분리교육, 그룹 교육이나 개인상담, 교육 이후 지속적 관리, 다양한 영양지식 전달방식 시도, 효과적인 인재활용 등이 도출되었다. 영양교육 도구 및 매체로서 번역물, 동영상 제작이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는 체계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며,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다문화 관련 기관의 부서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다문화적 교육여건 조성 측면에서는 다문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다문화영양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시민 윤리교육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권한을 배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17,18)} 즉 거버넌스가 제기된 정책과제 해결이나 상충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관련 주체들 간의 협의 및 의사결정행위라고 한다면 거버넌스 체제는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 조직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상호협력적인 조정이라 할 수 있다.¹⁹⁾ 다문화 영양교육의 대상자를 여성 결혼 이민자로 국한시키지 말고, 넓게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가족들, 한국인들로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하여 정부와 민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인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단지 문화적 지식과 가치관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사회정의, 평등, 환경 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²⁰⁾ 이 다문화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교육이라는 큰 그림 안에 다문화 영양교육도 함께 속해 있으며 전 국민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21,22)} 이상의 요인들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영양교육 방안 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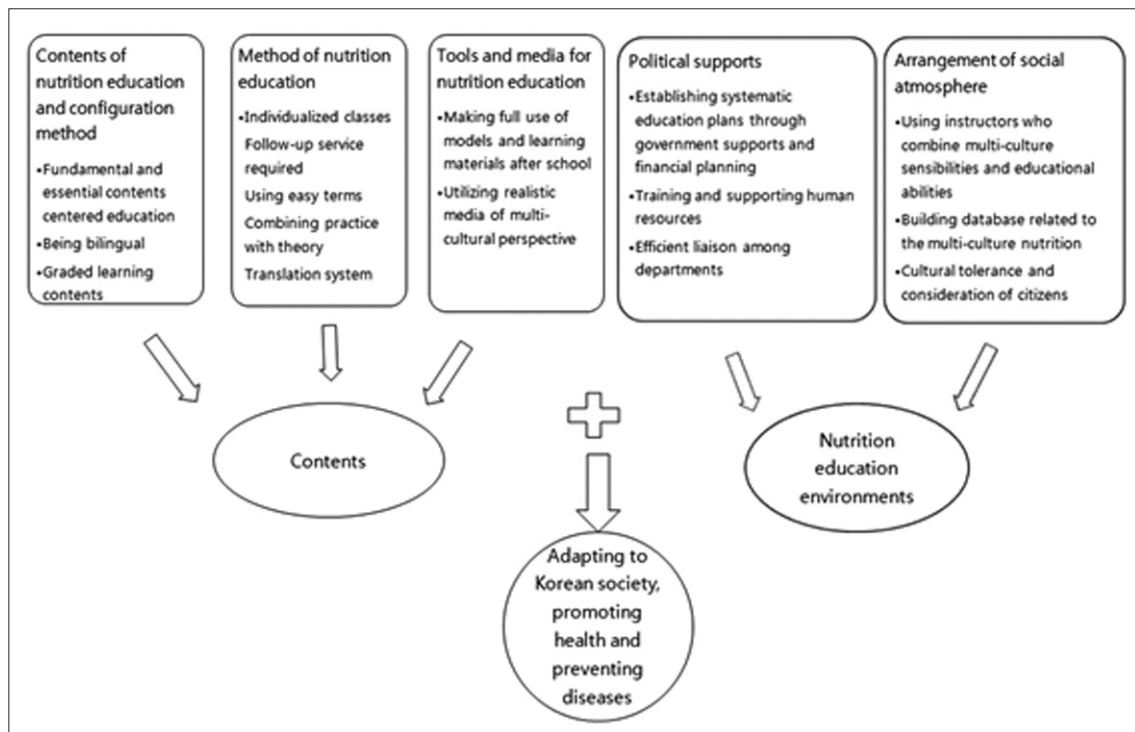


Fig. 1. Nutritional education model for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본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현황과 영양교육 필요성에 대한 이주여성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이 나아갈 바에 대한 교육 모형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모형은 크게 영양교육의 내용, 영양교육의 방법, 영양교육 도구 및 매체, 다문화 교육 여건 조성으로 구분하였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을 위한 영양교육은 내용과 언어 측면 모두 기초과정으로 전개해야 한다. 먼저 이중 언어(한글과 그들의 모국어)로 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며 한국 식재료 및 상차림과 생애주기별 교육내용 등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한국어 이해능력과 거주기간에 따라 교육 주제 및 내용이 심화되어야 하며 본국에서 익힌 잘못된 영양지식과 종교에 따른 속설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어야 하는 내용도 필요하겠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을 위한 영양교육 방법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주여성에게는 한국인들과 함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통합교육으로, 같은 문화권 사람들과의 동료의식 및 극심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질감을 갖고 있는 이주여성에게는 분리교육으로,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주여성에게는 가족들에게 영양지식을 전달하여 가정에서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대상별 눈높이와 한국 사회적응에 따른 대상별 맞춤 클래스를 적용해야 한다. 언어의 이해 능력이 부족한 이주여성에게는 교육했던 내용을 상기할 수 있는 교육 후 관리가 필요하고 내용을 전달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이론 교육 후에는 실습과 교육도구 및 매체를 활용한 실질적인 교육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겠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들을 위한 원활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 계획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다문화 관련기간의 부서별 연계로 협력과 시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문화 시각에서 접근한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문화적 교육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소수자에 대한 문화적 관용성과 배려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여 졌으며, 아직 다문화 영양교육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나라별 이주여성에게 따른 식사행태 및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기초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 관점이 한국 동화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영양교육 측면에서도 '영양' '식품' '문화'의 분야를 적절히 사용하여 한국의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며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영양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동화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여 한국 식생활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둘째, 자녀양육에 필요한 식생활 실천지침 중심의 식생활 지도와 식품군 및 영양의 이해를 위한 교재 및 교구를 이용하여 쉽게 영양지식을 전달한다. 셋째,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요리활동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다문화 가정 본국의 식문화와 한국 식문화를 비교 대조하며 양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어 문화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들의 영양문제를 파악하여 이론적인 강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때 고려할 점으로서 교육대상자의 '학습단계별·한국어능력별'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 모형을 토대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더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및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하여 (Fig. 2) 보다 효율적인 영양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다문화가정의 건강 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 매뉴얼이 없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 및 이주여성과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다문화 영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양교육의 방안을 토대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와 다문화 영양에 관한 기초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부 부처와 관련기관 등 국민영양조사와 같은 방법으로 다문화 영양 및 건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D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S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식 및 식생활 행태를 조사하고,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8명과 영양교육 전문가 4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다문화 가정 영양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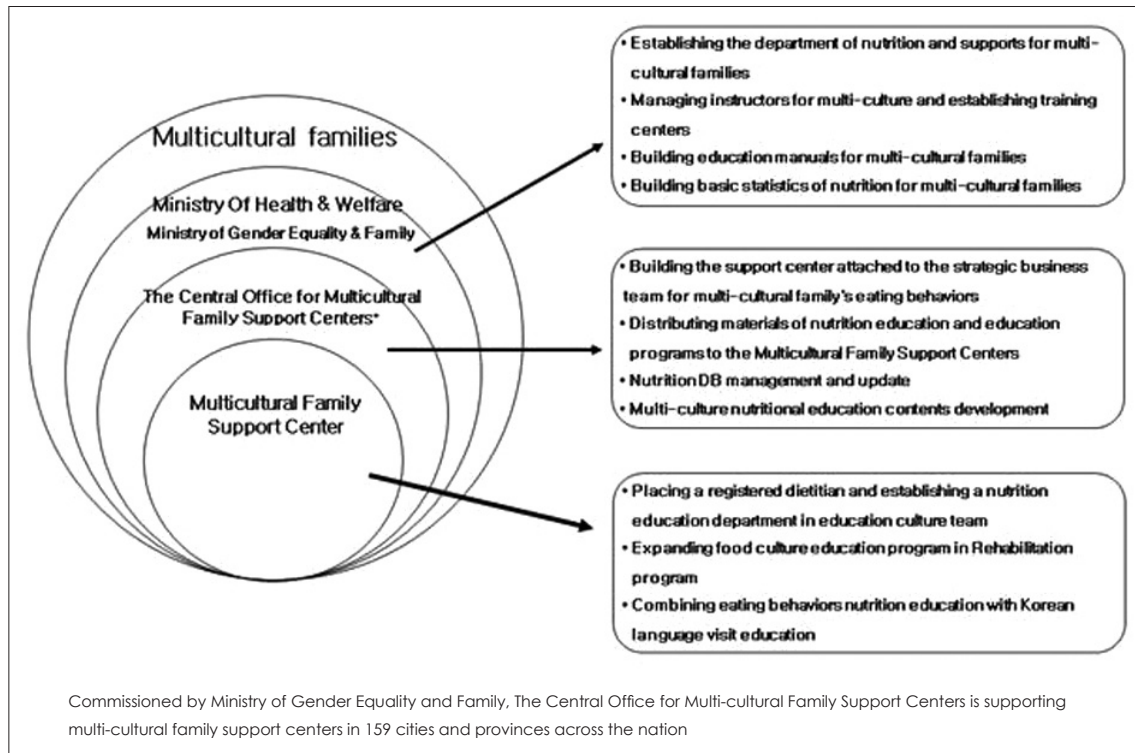


Fig. 2. Model of liaison among departments for immigrant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1)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영양지식 및 식생활 행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이 5년 미만인 경우보다 식생활 행태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라 식생활 행태 점수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세부항목별로 볼 때, 지방섭취와 나트륨섭취에 대한 식생활에서 자녀 유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영양지식은 거주기간이나 자녀유무,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논의된 의견을 분석한 결과, 한국식생활의 적응 측면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정의 식생활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양정보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과 학력수준이 낮은 데서 오는 식생활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식생활 적응의 어려움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측면에서는 이민 후 식생활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 등이 도출되어, 이러한 요인들이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영양교육 방안 계획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3) 영양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 영양교육 콘텐츠 개발 측면에서 기초적인 영양지식 배양 및 심화과정의 단계적 교육을 구성하며, 교육 방법에 있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통합교육이나 분리교육, 그룹

교육이나 개인상담, 교육 이후 지속적 관리, 다양한 영양지식 전달방식 시도, 효과적인 인재활용 등이 도출되었다. 영양교육 도구 및 매체로서 번역물, 동영상 제작이 필요하고,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는 체계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며,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다문화 관련 기관의 부서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다문화적 교육여건 조성 측면에서는 다문화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다문화영양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시민 윤리교육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4)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영양교육 방안으로서 영양교육모형을 내용, 방법, 도구 및 매체, 교육여건조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영양교육의 내용은 기초과정 및 심화과정으로 구성하며, 한국어 이해능력과 거주기간에 따른 교육 주제 및 내용의 난이도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영양교육의 방법으로는 한국인과 통합 및 분리교육, 대상별 맞춤 클래스 개설, 실습 병행, 구체적이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영양교육의 도구 및 매체에서는 모국어로 번역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영양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민간단체와의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므로써, 다문화주의에 기초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영양교육 모형을 토대로 구체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연구가 더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식생활 개선 및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Literature cited

- 1) Korea Immigration Service. Immigrant nationality residence status. 2010 Sep 30. Available from: <http://immigration.go.kr>
- 2) Seo JN. Multicultural families by international marriage: Contemplation on present issues for possible solution. *Theory Res Citizsh Educ* 2009; 42(1): 103-126
- 3) Park YI. A study on multi-cultural family wives adapting to Korean cuisine and dietary patterns [Master thesis].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 4) Kim SH, Kim WY, Lyu JE, Chung HW, Hwang JY. Dietary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Korean spouses and correlations of their diets. *Korean J Community Nutr* 2009; 14(1): 22-30
- 5) Kim JM, Lee NH. Analysis of the dietary life of im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Daegu area. *J Korean Diet Assoc* 2009; 15(4): 405-418
- 6) Seels BB, Richey RC. Instructional technology: The definition and domains of the field,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 by Y.S. Kim, et. al. Paju: Kyoyookbook; 1996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utrition plus program source book: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2008
- 8) Hwang KA. Study on eating habits, understanding and insight on nutrition label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Daegu: Keimyung University; 2010
- 9) Gany F, Thiel de Bocanegra H. Maternal-child immigrant health training: changing knowledge and attitudes to improve health care delivery. *Patient Educ Couns* 1996; 27(1): 23-31
- 10) Jo SY. The study on nursing intervention about delirium of elder patients admitted ICU: Focus group interview analysis [Master thesis]. Seoul: Korea University; 2010
- 11) Han YH.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Master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10
- 12) Banks JA.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3rd ed. Boston: Allyn & Bacon; 2002
- 13) Pang V. Multicultural education: A caring - Centered, reflective approach, 2nd ed. New York: McGraw-Hill; 2004
- 14) Kruger S. Prevention of delirium in hospitalized older patients: Risk factors and targeted intervention strategies. New York: Bronx; 2000
- 15) Kang IJ. A survey on nutrition knowledge and dietary life of women in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 thesis].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2010
- 16) Park HW, Moon ST.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immigrants in rural area for social adjustment education. *J Ar-gic Educ Hum Resour Dev* 2008; 40(2): 69-91
- 17) Kim HJ. Government-led multiculturalism in Korea: multiculturalism theories and domestic application. In multiculturalism in Korea: Reality and issues. Seoul: Hanul Academy; 2008
- 18) He J, Klag MJ, Wu Z, Qian MC, Chen JY, MO PS, He QO, Whelton PK. Effect of migration and related environmental changes on serum lipid levels in southwestern Chinese men. *Am J Epidemiol* 1996; 144(9): 839-848
- 19) Kim KS. A 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Master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6
- 20)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on the school food service status for accessing improvement measures. 2003
- 21) Bennett CI.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 practice, 4th ed. New York: Allyn & Bacon; 1998
- 22) Jeon KS, Jeong KS, Lee JH.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2007